

DDA 2006년 1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WTO 가맹국들은 금년 4월 말까지 모델리티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데 비해 협상 기간이 매우 촉박해 제시된 일정대로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1. 주요국 동향

브라질은 DDA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상급 회의를 가지고 각국의 정상들이 정치적인 추진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브라질의 고위급 관료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다른 주요국들은 브라질의 제안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이 현재처럼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더라도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한편 EU의 만델슨 집행위원은 라미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EU는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지난 홍콩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EU의 한 관계자는 DDA 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 특히 브라질과 인도가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포트먼 무역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보스에서 열릴 각료회의에 대해서 올해 봄까지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회원국들이 시장접근분야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 서비스 협상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포트먼 무역대표는 EU가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좀 더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브라질, 인도 등과 접촉한 바 있으며 다보스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의 시작 즈음에 EU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브라질과의 접촉을 통해 브라질이 비농산물 관세를 좀 더 인하할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EU가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국내보조 분야에서 양보할 의사는 없으며 개도국들도 비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포트먼 무역대표는 기자들에게 비록 DDA 협상이 지난 4년간 부진했지만 미국은 DD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과 개도국들이 EU를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EU의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베를린에서 가진 경영지도자 회의에서 WTO의 핵심국들과 집중적인 양자 협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

였다. 또한 EU가 지난 10월 제시한 제안서는 실질적인 관세 감축을 야기할 것인데 반해 다른 그룹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를 경우 명목상의 감축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지체요인을 다른 나라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DDA 협상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면서 WTO 내의 개도국들이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G-20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지만 G-90은 다른 회원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였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DDA 협상은 EU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으며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EU가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보를 함으로써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제시된 제안만으로도 EU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WTO 농업협상 일정

WTO 회원국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2006년의 첫 농업협상 회의를 가진다. 또한 농업협상 말미에 열리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을 계기로 소규모 각료회가 열릴 예정이며 주요국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각료회의에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남아공, 뉴질랜드, 한국, 케냐 등 10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료들은 협상에서의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협상 일정과 절차,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향후 협상 일정

날짜	회의
1/23~1/27	농업협상
2/13~2/17	농업협상
3/20~3/24	농업협상
4/18~4/21	농업협상
4월 말	모델리티 협상 완료
7월 말	이행계획서 제출
12월 말	DDA 타결

WTO 사무국은 4월까지 협상 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4월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농업협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